

海外커피産業

金 濟 華

〈調達聽 外資局〉

美農務省의 豫測에 의하면 78~79年度の 世界커피 生産量은 7,440萬 bags (1bag은 60kg)로 展望하고 있는데 이는 77~78年度の 生産量보다 7%가 增加한 量이다.

總生産量에서 生産國의 國內消費量을 除外하면 輸出餘力은 7%가 增加한 5,510萬 bags로 推定되고 있다.

78~79年度の 北美地域의 生産에 있어서 注目되는 것은 엘살바돌의 10萬 bags의 增加와 도미니카 共和國의 5萬 bags의 減少이다.

南美에 있어서는 보리비아의 推定生産量이 78~79年度 및 77~78年度の 兩年度에 있어서 下向修正 되었으며 한편 78~79年度の 生産展望은 微增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78~79年度 生産展望은 小規模 生産國에 있어서는 變動이 있었으나 全體的으로 볼때는 별로 變動이 없으며 77~78年度에 있어서는 輸出이 豫測以上으로 增加하였다는 理由로 케니아의 推定生産量이 15%로 增加하였다.

한편 印度의 78~79年度 生産量은 降雨過多로 15萬 bags가 減少되었다.

北美地域

78~79年度の 北美地域에 있어서 커피生産量은 1,510萬 bags로 推定되고 있으며 이 중 輸出可能한 量은 1,130萬 bags로 推定되고 있다.

엘살바돌의 生産은 10萬bags가 上向修正되었으며 反對로 도미니카 共和國의 生産은 開花期의 降雨關係로 5萬bags가 減少되었다.

코스타리카의 78~79年度 生産

은 160萬bags로 變動이 없으나 이 推定이 옳다면 실제로 生産量은 더욱 增加할 可能性이 있다. 코스타리카는 79年 1~3月の 輸出量上 限을 25,000톤으로 定하였다.

이 決定은 國立커피局(National Coffee Office)이 보고타 그룹(커피生産國으로 構成되는 國際組織)의 價格防衝政策(price defense policy)에 따라 實施한 것이라고 한다.

보고타 그룹의 價格安定基金(stabilization fund)에 대한 코스타리카의 分擔金은 500萬弗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나 確實하지는 않다.

도미니카 共和國의 78~79年度 生産展望은 70萬 bags로 修正되었는데 이는 前年度生産量의 31%의 減少에 該當한 것이다.

이러한 下向修正의 原因은 開花期의 降雨와 施肥의 不足이 主因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各方面의 推定을 綜合하면 커피의 總作付面積은 12萬ha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한편 77~78年度の 總輸出量은 75萬1,000 bags(1億 6,400萬弗)로서 前年度の 48萬1,000 bags(1億 3,000萬弗)를 上廻하였다.

78年 9月 5日 政府는 커피輸出稅를 復活시켰는데 課稅率은 前회에 비해 10%정도 낮게

設定되었다.

엘살바돌의 78~79年度の 커피生産은 300萬 bags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데 生産者, 精豆業者, 仲介人 등으로 부터의 報告를 綜合하면 生産量은 前回の 報告보다 약 10萬bags가 增加할 것으로 展望하였다.

파테마라의 77~78年 및 78~79年度の 커피生産은 각각 235萬 bags와 250萬bags로 推定되고 있으며 貿易關係者들의 情報에 의하면 昨年 9月の 降雨과 開花時에 있어서의 降雨量 不足으로 下廻할 것으로 보인다.

78年の 그린·커피의 輸出量은 218萬bags이며 金額으로는 4億 6,000萬弗로서 輸出總額의 55%를 차지하였으며 78~79販賣年度の 輸出은 115萬bags로 보고 있으며 78年 10月 1日부터 79年 1月 26日까지의 出荷實積은 72萬 5,000bags에 달하였다.

77~78年度の 國內커피消費量은 31萬bags로 推定되고 있으며 78~79年度에는 31萬5,000 bags로 增加할 可能性이 있으며 國內의 커피價格은 kg當 약 2.50弗(파운드 當 1.13弗)로 統制되고 있다.

자마이카의 78~79年度 生産은 前年度에 비해 20%가 減少한 2萬 bags로 推定되고 있는데 季節初에 良好한 溫度條件의 혜택에도 不拘하고 生産減少가 豫測된 主要理由는 最近에 나타난 害虫의 被害와 2년에 한번씩 닥쳐오는 生産不振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鼓舞의인 要因으로서는 政府는 生産者에 대한 獎勵를 계속하고 있는데 커피産業委員會(Coffee Industry Board)의 發表에 의하면 250~400 acre (100~160ha) 정도의 土地에 커피가 새로 植付되고 있다고 한다.

자마이카에서는 커피의 開花시준이 2期로 나누어지는데 “볼·마운텐” 地域은 開花는 7월에 始作되며 2~4月사이에 收穫을 하고 其

他地域에서는 12月과 1월에 開花, 8~12月사이에 收穫을 한다.

77年 10月부터 78年 9月까지의 1年間에 자마이카는 1萬7,560 bags의 커피를 輸出하였으며 4,174 bags의 低品質 커피를 國內消費용으로 輸入하였다.

멕시코의 78~79年度の 推定生産量은 380萬 bags로 1月初旬의 서리(霜)와 强風으로 커피의 열매가 약간 被害를 입고 있어 今年度の 輸出品質 커피의 生産은 10萬 bags가 減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被害를 입은 커피豆의 대부분은 利用可能하며 國內市場으로 出荷될 것으로 보인다.

“베라크라스”北部, “푸에부라” 및 “이달고”와 “산루이스포트리”의 一部에서는 1月の 寒冷氣候 때문에 79~80年度生産用的 開花가 얼마간 減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生産量에 대한 影響을 推定하는것은 時期尙早이며 또한 被害의 정도는 木葉의 被害程度에 크게 左右될 것으로 보인다. 77~78年度の 멕시코 生産量은 360萬 bags, 國內消費量은 155萬 bags로 推定되며 78~79年度는 이보다 약 10%가 增加할 것으로 豫想되고 있다.

79年 1月까지 販賣된 새로운 收穫커피(78~79年度收穫)는 總 75萬 bags로 推定되는데 報告에 따르면 이 중 60%는 멕시코 커피協會(INMECAFE)가 販賣한 것이며 나머지는 私企業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77~78년에 收穫한 커피는 거의 나머지가 없으며 昨年 10月부터 79年 9月까지의 1年間 멕시코의 輸出量은 77~78年度 實積을 25%以上 증가하는 220萬 bags에 달한 것으로 象想되고 있다.

國際價格의 下落에 따라 종전의 最低輸出登錄價格(minimum export register price) 制

度는 78年 11월에 廢止되었는데 이에 대신해서 導入된 것이 INMECAFE가 每日提示하는 參考價格(reference price)이다.

가령 79年 2月 1日 時點에서의 參考價格은 kg當 2.69弗(파운드當 1.22弗)이며 中美 및 콜롬비아產의 同品質 마일드·위슈드 커피의 國際價格에 비해 높은 水準이다.

멕시코는 最近 東歐諸國으로 커피를 輸出하는 長期協定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協定の 有效期間은 4年間이라고 하며 相對國중 알려진 國家로서는 유고와 루마니아이다.

南美地域

78~79年度의 南美커피生産은 3,440萬bags로 豫想된다.

볼리비아의 生産은 下向修正되었으나 페루의 推定量增大로 거의 相殺되고 있다.

78~79年度의 南美的 總生産量은 前年度보다 9%上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輸出生産은 2,350萬 bags로 推定되며 前年度의 2,130萬 bags를 능가하고 있다.

볼리비아의 78~79年度커피生産은 前年度에 비해 6%가 增加한 13萬 bags로 推定된다.

브라질의 77~78年度 및 78~79年度의 推定生産量은 각각 1,750萬 bags 및 2,000萬bags로 變치않고 있다.

브라질커피院(IBC)은 지난 2월에 78~79年度커피 生産量의 展望을 發表했는데 이에 따르면 生産量은 78年 10月中旬의 推定量(1,920萬 bags)을 上廻하는 2,000萬 bags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IBC는 同時에 79~80年度 生産量(79年 收穫)에 대한 1次展望을 2,130萬 bags로 發表하였다.

IBC에 의하면 78年の 브라질의 커피輸出量은 1,255萬 973bags (22億 9,000萬弗)이었는데, 이 중 1,035萬 5,009 bags는 그린·커피이며 나머지는 인스탄트커피를 그린커피로 換算한 것이다. 77年の 輸出量은 1,008萬 2,907 bags(26億弗)로서 이 중 그린·커피는 889萬 6,220 bags이었다.

IBC 總裁에 의하면 79年の 브라질의 커피輸出은 거의 前年水準이라고 한다.

또한 IBC는 79年 2月 1일부터 4月 30일까지 船積分에 適用되는 最低登錄價格 및 分擔額(즉, 輸出稅)을 다음과 같이 減額하였다.

- (a) type 6 以上の 그린·커피 : 파운드當 \$1.60에서 \$1.30로 減額
- (b) type 6以下 7까지의 그린·커피 : 파운드當 \$1.57에서 \$1.27로 減額
- (c) 그린·커피輸出에 있어서 分擔額 : 파운드當 \$90에서 \$50로 減額

한편 79年 1月 1일부터 政府는 그 파운드커피와 로스트커피의 消費者價格을 10%引上하였다.

그 結果 價格(kg當)은 中央部 및 南部의 州에서는 64.80에서 71쿠루제이로로 上昇했으며 北部 및 北東部の 州에서는 68.42에서 73쿠루제이로로 上昇하였다.

그런데 이곳에서 브라질의 커피生産의 추세를 보면 해에 따라 增減이 격심했는데 1971年에서 73년에 걸쳐서 2,400萬 bags 水準으로 比較的 安定的으로 추세된 커피生産은 74년에는 2,810萬 bags로 最高水準을 記錄한 후 75년에는 2,200萬 bags로 減少하였으며 또한 76년에는 불과 600萬 bags로 74年 水準의 $\frac{1}{5}$ 까지 激減되었다.

그 후 77年の 生産은 1,530萬 bags, 78년에는 1,920萬 bags로 다시 增加勢로 轉換되었으나 70年代 前半의 水準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

다.

이와같은 브라질의 커피生産에 있어서 격심한變動은 基本的으로는 커피生産은 氣象條件에 크게 左右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브라질의 커피主産地는 “파라나”州, “상파울로”州, “미나스·제라이스”州, 기타州로 크게 分類할 수가 있는데 大霜害가 있었던 75년에는 總生産의 53.9%를 “파라나”州가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상파울로州 32.2%, “미나스·제라이스”州는 9.2%, 其他 4.6%의 순으로 되어 있다.

콜롬비아의 커피事情을 보면 78~79年度の生産은 前年度の 1,030萬 bags에서 4.9%가 增加한 1,080萬 bags로 推定되고 있다.

77~78年度の生産은 好調를 보인 것으로 一般的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生産이 增大한 理由로서는 良好한 氣象條件과 收穫面積이 8% 增加되었고 管理方法의 改善 등을 들 수 있으며 ha當 平均收穫量은 3%가 增加하였다.

78年 10~12月の 커피輸出은 前年 同期에 비해 거의 2배가 增加한 295萬 6,404 bags에 달한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79年 2月 21日 콜롬비아 通貨委員會(Monetary Board)는 輸出預託金(커피 輸出業者가 輸出量에 따라 中央銀行에 預託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美貨의 最低金額)을 70kg bag當 \$217에서 \$188.40(파운드當 \$1.41에서 \$1.29)로 減額하였는데 이는 輸出業者에게 競爭力을 주기 위해서 通貨委員會가 實施한 것이다.

2月 21日以來, 全國커피生産聯合會(CGF)는 輸出業者에게 支拂하는 轉賣價格을 引上하였는데 3月 9日 現在의 轉賣價格은 kg當 \$3.02(파운드當 \$1.37)이다.

CGF는 79年 2월에 國內의 커피政策을 改革하는 內容을 보면 첫째, 커피의 生産者 價格을 12%引下하였는데 즉 125kg當 \$176에서

\$154로 引下한 것이다.

現在의 콜롬비아의 커피政策의 骨子は 앞으로 生産의 擴大를 戒할 것이며 그 上限을 1,200萬 bags로 정하고 輸出을 900萬 bags까지 擴大할 것이라고 한다.

生産을 一定水準으로 抑制하려고 하는 것은 最大의 生産國인 브라질의 生産이 擴大된 경우 國際價格의 低下가 豫想되기 때문이다.

페루의 78~79年度(4月~3月)의 生産量은 前年度보다 약간 많은 108萬 bags로 推定되고 있는데 生産增加의 原因은 開花期에 降雨의 혜택과 栽培方法의 改善이다.

그러나 生産者에 대한 肥料助成金(fertilizer subsidies)이 78年을 통해 점차 削減되고 있으며 生産費의 增大는 앞으로의 收穫에 나쁜 影響을 미칠 可能性이 있다.

78~79年度の 커피作付面積은 12萬2,000ha, 커피나무는 1億 9,600萬樹로 推定되고 있다.

78年 4月~79年 3월에 걸쳐 輸出量은 77~78年度の 76萬 bags를 上廻하는 85萬 bags로 推定되고 있으며, 國內消費量(그린·빈換算)은 약 25萬 bags로서 最近 數年間에는 增加하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커피生産은 78~79年度에는 1,830萬 bags로 推定되고 있으며 이 중 輸出可能量은 1,570萬 bags라고 하는데, 이는 77~78年度の 總生産量 및 輸出生産量에 비해 각각 7% 및 8%가 많다.

大生産國중 78~79年度の 生産量이 前年度보다 크게 上廻할 것으로 豫測되는 國家로서는 카메룬과 코트·지보알로서 이 두나라의 生産增加는 앙고라와 케니아의 生産減少를 相

殺하고도 남을 것으로 보인다.

케니아의 78~79年度の 生産量은 前回の 推定과 같은 134萬 bags로서 과거 2年間の 實績을 상당히 下廻하고 있는데 生産不振의 主要原因은 降雨過多이다.

77~78年度の 케니아의 生産量은 輸出好調과 높은 在庫水準으로 140萬 bags로 上向修正되고 있다.

케니아 커피委員會(Coffee Board of Kenya)는 政府의 代行機關으로서 모든 重要問題, 가령 植付, 生産의 擴大, 加工, 研究, 許可 및 販賣 등을 調整하고 있다.

케니아의 販賣시스템은 農家に 適正한 收入을 줄과 同時に 順調로운 輸出을 確保할 것을 目的으로 設計되고 있다.

政府는 커피産業의 再建을 위해 相當額의 借款을 世界銀行에 要請하였다.

한편 커피委員會는 現在 生産性增強을 위해 3個年計劃을 實施中에 있는데 이 計劃은 農場經營, 資金供給과 土壤改善을 통해서 커피의 生産性 向上을 示圖하려는 것이며 主된 對象은 케니아의 커피栽培地의 약 70%를 占하는 小規模 耕作者들이다.

아시아·大洋洲

78~79年度の 아시아 및 大洋洲의 커피總生産은 前年度の 690萬 bags에서 4.3%가 減少한 660萬 bags로 推定되고 있다.

現生産年度の 數量減少는 大部分 印度에서 發生한 것으로서 例年보다 많은 降雨가 收穫에 影響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아시아 및 大洋洲의 輸出生産量은 前年度에 비해 5%가 減少한 460萬 bags로 推定되고 있는데 印度以外的 大生産國으로서는 인도네시아, 비올빈, 파푸아, 뉴기니아가 있다.

印度의 78~79年度の 커피 推定生産量은

185萬 bags로 보고 있어 前回の 報告內容보다 15萬 bags가 적으며 前年度에 比해서는 13%가 減少된 것이다. 現年度の 推定生産量이 下落한 原因은 11月の 降雨로 大部分의 커피가 生産地에서 被害를 입었기 때문이다.

커피委員會(Coffee Coard)는 78~79年度 生産중 97萬 5,000 bags만을 輸出用으로 잡고 있다.

他國產커피에 대해서 印度產커피의 競爭力을 維持하기 위해서 輸出價格을 最近大幅으로 削減하였다.

美國의 커피貿易

78年の 美國의 그린·커피輸入量은 前年度の 1,480萬 bags(39億弗)에서 22.3%가 增加한 1,810萬 bags(37億弗)에 달했는데 75年 및 76年の 그린·커피輸入量은 각각 2,030萬bags 및 1,980萬 bags이었다.

75년부터 78년까지의 年度別輸入 그린·커피의 1파운드당 平均 FOB 價格은 각각 \$0.58, \$1.01, \$1.97, \$1.55이었는데 4年間に 月別平均輸入價格이 最高值를 기록한 것은 77年 7月の \$2.44이었으며 79年 1月現在 平均輸入價格은 \$1.34까지 下落하였다.

78년에 있어서 對美輸出上位 10個國은 다음과 같다.

콜롬비아(280萬 8,000bags), 브라질(269萬 4,000 bags), 멕시코(139萬 bags), 인도네시아(117萬 7,000 bags), 에쿠아돌(104萬 4,000 bags), 코트·지부알(77萬 5,000 bags), 페루(65萬 4,000 bags), 엘살바돌(62萬 7,000 bags), 자이페(59萬 8,000 bags)이다.

主要原産國 및 地域의 78년에 있어서 美國 그린·커피市場占有率(괄호內는77年)은 브라질 15%(17%), 콜롬비아 16%(13%), 其他南 美諸國 12%(8%), 멕시코 및 中美諸國 22%.

(27%), 아프리카 및 아시아諸國 32%(31%), 카리브諸國 3%(4%)의 순으로 되어 있다.

한편 78년의 그린·커피 및 加工커피의 輸出(GBE기준)은 42萬 8,000 bags (1億1,400萬弗)이었으며 78년의 그린 커피와 加工커피의 再輸出(GBE基準)은 77萬 bags (1億7,400萬弗)이었다.

美商務省 統計局의 資料에 의하면 業者들이 保有하고 있는 그린·커피의 在庫는 233萬 1,000 bags로 同年 9月 30日의 213萬 1,000 bags보다 9.4%가 增加하였으며 77年末의 水準보다는 38%가 많다.

79年 5月 31日과 6月1日사이에 브라질에 내린 서리로 커피產地에 많은 被害를 가져오는 事態가 發生하였는데 被害커피나무는 11億 6,400萬樹에 달하고 있으며 브라질 總本樹의 $\frac{1}{3}$ 에 달하였다.

州別로는 “미나스·제라이스”州가 5億 200萬樹, 상파울로州 4億 1,000萬樹, 파라나州 2億 5,200萬樹로 되어 있다.

이와같은 霜害로 收穫豫想量은 大幅的으로 修正될 것으로 보이는데 IBC에 의하면 80/81年度의 生産量은 當初豫定했던 2,600萬 bags에서 1,900萬 bags로 26.9%가 減少할 것으로 보고있으며 또한 79/80年度에도 2,130萬 bags에서 1,950萬 bags로 8.4%가 減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같이 今年度보다 來年度가 減收幅이 클 것으로 보는 것은 霜害를 입은 커피나무의 結實率이 低下, 그 影響이 來年度의 收穫時에 나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州別로 보면 “미나스제라이스”州의 減收가 가장 深刻하여 當初豫想한 750萬 bags에서 410萬 bags로 45%가 減少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으며 “상파울로”州는 700萬bags에서 510萬 bags로 27%, “파라나”州는 840萬 bags에서

670萬 bags로 20%가 各各 減少될 것으로 豫想하고 있다.

上記被害狀況의 發表에 즈음하여 IBC는 ① 금번의 被害調査는 말하자면 豫備의인 것으로서 8日에『本格的인 調査實施를 計劃하고 있으며

② 作況의 回復은 앞으로의 氣象條件如何에 달려 있다고言及하였다.

霜害發生에 따른 브라질이 취한 措置는 첫째 커피의 輸出의 暫定的 中止이었다.

즉, IBC는 6月 4日 被害狀況이 밝혀질 때까지 커피豆, 인스탄트·커피의 輸出登錄을 中止하였으나

11日에 解除되어 커피輸出이 再開되었으나 最低輸出價格은 7月 31日까지 船積되는 것에 대해서는 最上質의 것이 파운드當 \$1.81(중견 \$1.50), 60kg bags로서는 \$238.92(\$198)로 20.7%가 上昇하였으며 輸出에 있어서 據出金은 1bag當 중견의 \$84에서 \$103로 23%가 引上되었다.

또한 인스탄트·커피에 있어서도 스프레드 라이 쥘이 파운드當 \$4.30(중견 \$3.80)로 引上하였다.

또한 世界의 커피市場은 最大의 生産國이며 또한 輸出國인 브라질의 動向에 左右되는 것만은 사실이다. 브라질에서의 霜害發生의 뉴스는 즉시 다른 生産國에 波及되어 6月 4日에는 콜롬비아, 멕시코 및 엘살바도르 國際市場의 混亂을 理由로 커피輸出을 中止하였다.

그 중에서도 브라질에 이어 世界 第2의 生産國인 콜롬비아는 輸出中止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措置를 導入하였다.

① Fedecafe(커피協會)에 의한 國內의 커피 買上價格을 125kg當 6,000페소에서 7,000페소로 引上

② 커피의 輸出預託金을 중견의 70kg當,

\$ 216에서 \$ 253로 상승

③ 커피의 輸出로 取得하는 外貨에 대해서 다시 外換證明書制度를 適用하는데 期間은 120日, 割引率은 8%로 하며

④ Fedecafe에 納品하는 커피의 留保率을 종전의 55%에서 58%로 상승하며

지난 2月下旬에 콜롬비아政府가 輸出預託金の 引下등 커피의 國際價格에 對應하는 措置를 취한 것은 前述한 바와 같다.

그 후에도 價格變動에 따라 일부가 修正되어 왔으나 이번 決定은 2月下旬의 措置를 全面的으로 撤回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든 커피市場은 75년의 브라질의 大霜害를 發端으로 國際時勢의 異常高騰이라는 말하자면 커피危機를 經驗하고 있어 이번 霜害가 앞으로의 커피市場에 미치는 影響이 注目되고 있다.

美國의 커피貿易

區 分	1977		1978	
	bag	1,000弗	bag	1,000弗
輸 入				
그 린·커피	14,808	3,860,998	18,133	3,728,299
로스트·커피	450	98,660	414	70,264
인스턴트·커피	1,260	282,485	1,226	235,796
計	16,518	4,242,143	19,773	4,034,359
輸 出				
그 린·커피	171	23,154	146	35,511
로스트·커피	209	31,707	119	39,365
인스턴트·커피	138	25,350	163	39,204
計	518	80,211	428	114,080
再輸出				
그 린·커피	1,404	362,009	717	163,144
로스트·커피	24	4,105	11	3,419
인스턴트·커피	43	10,069	42	7,021
計	1,471	376,183	770	173,584

國際커피協정의 運營

커피의 國際需給調整과 價格安定을 目的으로 設立된 國際커피協정 (ICA, International

Coffee Agreement)은 國際商品協정(International Commodity Agreement)의 하나로서 그 運營이 注目되고 있다.

이곳에서 國際商品協정이라고 하는 것은 各種 1次產品의 需要調整과 價格安定을 目的으로 締結되는 것이나 美國國際貿易委員會(ITC)는 International Commodity Agreement라고 하는 報告書에서 國際商品協정의 共通要素로서 다음 6가지 점을 指摘하고 있다.

① 多國間(Multilateral)에 締結된 것이어야 하며

② 生産國 및 消費國雙方을 包含한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2國間協정이나 OPEC와 같이 生産國만으로 構成되는 機構는 이에 該當하지 않게 되며

③ 單一產品 또는 이에 關聯된 複數의 商品을 對象으로 해야 하며

④ 商品價格의 安定化, 供給의 保證, 經濟開發의 促進 등을 그 目的으로 해야 하며

⑤ 이를 위한 特殊한 規則메카니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⑥ 輸出國 및 輸入國 雙方을 代表하는 中央機關에 의해 運營되어야 한다고 言及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을 滿足시키고 있는 國際商品協정으로서 現在 그 對象이 되고 있는 것으로서는 커피외에 小麥, 砂糖, 錫, 올리브, 코코아가 있다.

이들 商品協정은 각기 固有의 課題를 안고 있다.

가령 國際協정 (ISA, International Sugar Agreement)의 경우에는 協정 市場의 安定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最大의 關心이 되고 있으며 國際코코아協정이 안고 있는 問題는 同協정에 따라 코코아市場의 國際管理와 既存의 貿易秩序를 어떻게 調和하느냐에 있으며

또한 國際錫協定이 直面하고 있는 것은 緩衝在庫를 어떻게 効率的으로 또한 自由市場下에서의 物流를 阻害함이 없이 運營해야 하는가 하는 問題이다.

이러한 對立의 背景이 되고 있는 것은 各國의 커피生産量과 品質 및 世界市場에 接하는 市場支配率인데 이를 다시 複雜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利害關係에 따라 生産諸國間에 突派關係가 發生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諸國과의 集團化이다.

前者는 아라비카種을 生産하여 輸出歷史도 길며 大消費地인 美國에 隣接하고 있는 利點을 누리고 있으며 한편 後者는 로부스타種의 生産地帶로서 輸出의 歷史는 짧으나 rome協定下에서 EC와의 關係強化에 의한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같이 生産諸國의 歷史的, 地理的 環境 또는 生産品種에 의한 品質의 差異로 인해 利害對立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對立要因으로서 協定運營上 가장 重要한 것은 品質問題이다.

말하자면 원래 商品協定이 效果的으로 機能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輸出割當과 價格規制와의 併用이 바람직 하다고 하나 커피의 경우, 砂糖과는 달리 產地에 따라 品種이 多樣하기 때문에 技術的으로도 協定運營을 상당히 複雜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國際商品協定の 基本的인 目的이 需給調整과 價格安定에 있다는 것은 前述한 바와 같으나 이를 위한 메카니즘은 輸出割當(Export Quota)方式, 緩衝在庫(Buffer Stock)方式, 多角的 長期契約(Multilateral Long-term Contract) 方式의 세 가지로 크게 大別할 수 있다.

輸出割當方式이란 것은 需要에 따라 供給量을 調整하기 위해서는 各輸出國에 대해서 一定의 輸出規模를 設定, 이로부터 間接的으로

價格의 安定을 圖謀하려는 것이다.

緩衝在庫方式이란 市場價格의 變動에 따라 該當商品의 放出과 買入을 實施하므로써 價格을 一定한 範圍로 유지하기 위한 在庫運營을 하는 것이다.

또한 多角的長期契約는 複數의 輸出入國間에 一定한 價格帶에서 一定數量의 貿易을 長期的으로 契約한 것이다.

上記 3個方式中 ICA는 價格安定메카니즘으로서 輸出割當制를 採用하고 있다.

ICA의 輸出割當制는 ① 基礎輸出割當量(basic export quotas) ②그로발割當量(global quotas), ③ 年間割當量(annual quotas)의 3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①의 基礎的割當量은 過去의 實績등을 基準으로 輸出國에 대해서 割當되는 輸出數量이다 그러나 注意해야 할 것은 基礎的割當量은 그 自體가 割當량이 아니라 後述한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實際로 國別割當量을 設定하기 위한 基礎的인 數量인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基礎的割當量은 基礎的 輸出權(BEE, Basic Export Entitlement)으로 表現하는 편이 正確할 것이다.

다음으로 그로발割當量은 加盟輸出國에 있어서의 輸出市場 또는 輸出可能한 狀況을 勘案하여 決定되는 全體의 輸出量이다.

이때문에 이는 協定市場(agreement market)라고 칭한다.

한편 協定市場의 量을 決定하는 權限을 가지고 있는 것은 ICO理事會이다.

③의 年間割當量이라 하는 것은 個個의 輸出國의 BEE에 따라 配分되는 年間的 輸出割當量이다.

요컨대 BEE라는 것은 個個의 割當量設定의 基礎가 되는 數量이며 그로발割當量이라는 것은 各國에 配分되는 輸出量의 總量이며 年間

割當量이라는 것은 價格動向등을 考慮하여 加盟輸出國에 實際로 配分되는 輸出量이다.

따라서 BEE와 實際의 輸出量과는 같은 必要는 없다.

이러한 輸出割當의 規制를 받는것은 原則의 으로 커피의 年間輸出量이 40,000 bags(1bag는 60kg)以上の 國家들로서 40,000 bags未滿의 경우에는 規制對象外로 하고 있다.

BEE의 配分の 基礎가 되는 것은 주로 過去의 輸出實績임은 前述한 바와 같다(이는 絶對的인 基準이 없고 특별한 事情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限定되지 않고 있다. 가령 發展途上國, landlocked country, 小規模生産國에 있어서는 BEE의 設定時에 특별한 考慮가 必要하다).

다만 이러한 過去의 輸出方式을 重要視하는 方式은 이를 根據로 市場支配率의 固定化를 示圖하려는 브라질등 傳統的 輸出國에 有利하게 하는 한편, 其他 新進輸出國에 있어서는 不滿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지난 1962년에 開催된 UN커피會議(UNCC)에서는 커피生産國間의 對立을 보였는데 對立의 爭點은 unwashed coffee의 生産國인 브라질이 過去의 輸出實績에 따라 比例配分(pro rata)에 의한 輸出量의 設定을 主張한데 대해서 로부스타種 및 其他의 마일드種의 生産國이 國際市場에서의 品種需要에 따라 配分을 主張한 데 있었던 것이다.

結局은 브라질의 主張대로 이 比例配分에 의한 輸出量設定方式은 1968년에 協定에 包含시켰으며 1976年 協定에서도 基本的으로는 前協定의 配分方式이 답습된 것으로서 그 運營에 는 若干의 修正을 加했었다.

즉, 現協定에서는 BEE의 配分은 割當制의 導入의 有無 및 導入된다면 그 時期가 左右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割當制가 일률적으로 適用되는 것이 아니고 割當으로 인해 輸出이 制限을 받는 것은 커피의 市場價格이 一定의 水準을 下廻할 때이다.

이 一定의 水準을 下廻한 경우로 認定받기 위해서는 ① 커피의 市場價格이 IOC 理事會가 정한 最高價格을 下廻할 것과

② 75年當時의 로부스타種 및 其他의 마일드種의 平均市場價格을 下廻하고 있을 것의 두 가지 條件 중 어느 하나를 滿足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 중에서 第2의 條件은 브라질의 霜害를 發端으로 騰勢下에서의 價格을 참작하여 割當量을 設定할 必要때문에 設定된 것이다.

이러한 價格과 割當導入을 連動시키는 方式은 ICA의 經濟條項이라고 하고 있으나 現協定成立以後 지금까지 世界의 커피時勢는 上記 두 價格중 어느것 보다도 高水準으로 趨勢되어 왔기 때문에 이 經濟條項은 發効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는 加盟輸出國은 現協定下에서 實際로 그 輸出數量에 대해서 規制를 받은 일은 없다고 한다.

보리혼식
건강가족